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4월 3일

CUOMO 주지사, 슈퍼스톰 SANDY 희생자를 지원하는 3,850만 달러 규모의 서비스 프로그램 발표

NYC 및 Nassau, Suffolk, Orange, Putnam, Rockland, Sullivan, Ulster 및 Westchester 카운티 거주자는 Sandy 관련 자원을 원-스톱-숍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약 200명의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제공하는 가톨릭 자선 단체와 연계하여 슈퍼스톰 Sandy의 영향을 받은 개인과 가정이 재난을 극복하고 필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3,85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재해 사례 관리 프로그램(DCMP)은 대통령이 개별 지원이 포함된 재해 선언을 발표한 이후에 주, 미국 영토 및 연방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보조 연방 자금을 제공합니다.

DCMP는 재해 사례 관리자와 재해 생존자의 파트너십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여 재난 복구 계획을 개발하고 수행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생존자에게 단일 연락 지점을 제공하므로 생존자는 폭넓은 자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정은 생존자가 확인한 재해 관련 미충족 요구 사항 평가, 회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설명하는 목표 지향적 계획 개발, 재해로 인한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사용 가능한 자원에 관한 정보의 구성 및 조정, 복구 계획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대한 단계별 모니터링이 포함되고, 필요한 경우 생존자 옹호가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Sandy로 인한 피해 복구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는 직접적인 일대일 서비스를 통해 재화에 필요한 지원을 일일이 제공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재해 사례 관리 프로그램은 폭풍우에 의해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요구 사항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복구 지원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톨릭 자선 단체와 같은 파트너와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가톨릭 자선 단체 이사인 Kevin Sullivan은 “허리케인 Sandy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시, 도 및 그 주변의 카운티에서는 이 폭풍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Korean

지원을 제공하는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자립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좌절하곤 합니다. 서비스의 범위를 설명하고 시스템을 알아볼 수 있는 단일 연락 지점을 운영하면 Sandy로 인한 대대적인 손상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개인과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약 200명의 사례 관리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가정과 생활의 재건을 시작할 때 도움과 희망을 제공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한 카운티 13곳에 주둔하는 DCMP 코디네이터는 슈퍼스톰 Sandy의 피해에 대처하고 있지만 현재 지역, 주,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범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Sandy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옹호자이자 지원자입니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폭풍우와 관련해 미충족 요구 사항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이들에게는 모든 정부 및 보험 관련 지원을 위한 단일 연락 지점으로 활동하는 재해 사례 관리자가 할당됩니다. 그 후, 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의뢰인과의 상호 작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조금을 조정하며, 재해 사례 관리 범위 이외의 서비스를 위탁하는 등 개별 재해 복구 계획을 마련합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존의 Sandy 관련 서비스는 직접적인 연방 정부 보조금 및 주 정부 보조금과 중소기업 협회 대출을 비롯해 보험 옹호와 이미 기반을 다진 비영리 자원 봉사 프로그램 위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슈퍼스톰 Sandy DCMP는 2011년 허리케인 Irene과 열대 폭풍우 Lee가 강타한 이후 뉴욕주의 카운티 34곳에서 활동하는 가톨릭 자선 단체가 운영한 유사 프로그램을 모델로하고 있습니다. Sandy 지원의 경우, 가톨릭 자선 단체는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유대인 빈곤 위원회, 선한 목자 서비스, 루터교 사회 서비스, 장애인 독립 센터와 같은 유형의 활동을 통해 경험을 입증한 지역 기반 비영리 단체에 이들을 위탁합니다. 또한, 가톨릭 자선 단체는 차이나타운 커뮤니티 협회, 이민자 센터와 같은 몇몇 단체에도 위탁할 예정이므로, 뉴욕의 어떠한 커뮤니티도 뒤쳐지지 않도록 다양한 언어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FEMA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슈퍼스톰 Sandy로 인해 미충족 요구 사항이 발생되었거나 악화된 사람이라면 모두 자격 조건에 해당합니다. 폭풍우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1-855-258-0483](tel:1-855-258-0483)로 전화하여 위치와 연락처 정보를 확인한 후 가까운 서비스 제공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목록은 웹 사이트 www.catholiccharitiesny.org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주는 10,000명 이상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25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이 Sandy 관련 재해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 FEMA에 등록했습니다. FEMA에 따르면, 과거에 재해가 발생했던 당시에 FEMA 지원자의 약 5%는 재해 사례 관리 서비스를 활용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